

# 조선왕조실록 포쇄 · 이안 의식 가치 발굴

무주군, 학술대회 갖고 적상산사고 포쇄 의식 역사 등 주제 발표 · 토론 진행

무주군은 지난 25일 무주읍 최북미술관 2층 다목적영상관에서 “조선왕조실록 포쇄 · 이안 의식의 무형유산적 가치 발굴과 확산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무주문화원(원장 맹갑상)과 무형문화연구원(원장 함한희)이 주최하고 무주군(군수 황인홍)과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가 후원한 이날 학술대회는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 포쇄 · 이안 의식 관련 학술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기초를 닦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강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성근 원주문화원 원장을 비롯한 적상산 국가유산 선양회원 등 50여 명이 함께 했다.

전주역사박물관 이희희 관장(에원예술대학교 교수)이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포쇄 의식의 역사와 무형유산적 가치”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을 통해 학술대회 시작을 알렸으며 박대길 전북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이 “적상산사고 설치의 역사성과 무주 위상 제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재준 선임 사서가 “적상산사고 봉안 자료 현황과 가치”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김정수 전주대학교 교수는 “유·무형 유산을 연계한 문화콘텐츠 활용 전략”을, 박현정 전주대학교 교수는 “1800년대 적상산사고 포쇄 의



무주군은 지난 25일 무주읍 최북미술관 2층 다목적영상관에서 “조선왕조실록 포쇄 · 이안 의식의 무형유산적 가치 발굴과 확산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식 복식 고증”에 관한 내용을 공유해 관심을 모았다.

함한희 무형문화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던 종합토론에서는 조계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과 박용만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연구원, 오세미나전북대학교 교수, 김영선 전통문화연구소 ‘태환’의 소장이 앞서 발표된 4가지 주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보존·관리했던 적상산사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자 유의미한 학술 연구의 토대를 구축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조선왕조 472년의 숨결을 품은 고장답게 지나간 역사를 되짚어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새겨나갈 수 있도록 정성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글 읽는 고을, 유교 문화’ 특별전

남원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12월 22일까지 개최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에서는 10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개월간 ‘글 읽는 고을, 유교 문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남원은 조선시대에도 인근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찾으면서 다양한 물산이 왕래하던 고장이자 대도호부로서 소과와 생원, 진사를 비롯 다수의 대과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글 읽는 고장이었다.

이에 남원시에서는 한 해의 결실을 맺는 계절을 맞아 ‘옛 선인들은 어떤 책을 읽고 공부를 했을까’라는 테마로 기획전을 준비했다.

조선시대 특히 조선후기에는 일반적으로 7~8세가 되면 서당에 들어가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하여, 15~16세가 되면 사서삼경을 마쳐, 이에 당시의 교육과정을 돌아보며 유생들은 어떤 책을 읽었는가를 본 전시를 통해 관람하실 수 있을 예정이다. 전시자료는 통감, 사서(대학, 논어, 맹자, 중용), 삼경(시경, 서경, 주역) 등을 비롯해



여 사서의 언해본, 고문진보 그리고 역사서로는 사기, 사기영선, 사기평림, 사요취선, 운서로는 규장전문, 옥취운고, 옥찬 등의 자료로서 학생들이 기초 한문을 익힌 후 유생으로서 본격적으로 한문 교육으로 진입할 때 읽었던 책들이 전시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30일 '전북지식살롱' 7회차 강연

여행 분야와 미식의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조은영 편집장이 ‘당신이 모르는 그곳, 한국’이라는 주제로 ‘전북지식살롱(시즌2)’(이하 지식살롱) 7회 차 강연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 이하 재단)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오홍섭, 이하 공사)는 오는 30일 오후 5시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 1층에서 강연을 추진한다.

참여 방법은 여행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포스터 내 QR 코드 또는 링크(han.gil/17vg8)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강연에서는 조은영 편집장의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구석구석을 여행 다닌 경험과 여행 가이드북을 펴낸 사례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여행자의 시선에서 전북자치도를 바라봤을 때 보이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강의 내용은 △우리는 왜 여행을 하는가? ‘여행하면 행복해지는 이유’ △우리가 모르는 한국의 매력 △여행의 기술 ‘우리 이렇게 여행해 봅시다!’ 등 한국의 숨겨진 매력과 여행 노하우에 대해 알리고 공유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전주시, ‘혼례음악회 한·결(韓·結)’ 내달 2일 진행

혼례 문화를 주제로 한 특별한 공연 ‘혼례음악회 한·결(韓·結)’이 오는 11월 2일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열린다.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혼례음악회 한·결(韓·結)’은 전통문화를 아끼고 지켜가는 도시 ‘전주’가 새롭게 선보이는 관광 콘텐츠로서 혼례라는 하나의 콘텐츠 속에 녹아 있는 다양한 문화 요소를 ‘K-예식 공연’으로 재해석한 공연이다.

총 4부로 구성된 ‘혼례음악회 한·결(韓·結)’은 크게 재현과 축하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작은 뮤지컬로 연다. 뮤지컬 명성황후의 주연이자 대한민국 뮤지컬 대상 여우주연상 수상에 빛나는 현 명지대 교수 이태원 씨, 뮤지컬 영웅과 레베카 외 다수 유명 뮤지컬 출연 배우인 조휘 씨 등이 혼례(예식)와 관련한 뮤지컬 넘버를 갈라쇼 형식으로 선보인다.

이어지는 2부와 3부는 예식의 재현과 연회이다. 첫 번째는 민간 전통혼례 재현으로 신랑 신부의 살례는 예식과 함께 전주기적놀이, 왕기석 명창의 축가가 더해져 흥겨운 무대를 연출하고, 3부는 왕실의 가례(嘉禮)의식 중 비수책의, 친영의식을 재현하여 2부 민간 혼례와는 또 다른 혼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가



레 축하연은 국립민속국악원에서 궁중정재(宮中正才) 중 대평무, 연화대무를 선보일 예정으로 고풍의 위엄과 고귀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피날레는 크로스오버 4중창 ‘라포엠’, 가수 ‘하동균’, 뮤지컬 배우 ‘배다혜’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출연자마다 색이 분명한 이들은 본인의 대표곡은 물론 축하 형식의 공연을 선보이며 ‘혼례음악회 한·결(韓·結)’의 대미를 장식한다.

혼례음악회 한·결(韓·結)은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오는 11월 2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며 선착순 무료 공연이다. 다소 쌀쌀한 기온을 대비하여 관객에게 손난로 나누어 드리고 관람 후 설문조사에 응한 분께는 별도의 기념품도(선착순) 증정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구석구석 문화매달 예술, 골골쫄쫄’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11월 3일까지 문화가 있는 날 주간 10개 시·군서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 이하 재단)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도내 지역민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석구석 문화매달 예술, 골골쫄쫄(이하 예술, 골골쫄쫄)’을 진행한다.

10월 전북특별자치도 구석구석 문화매달 예술, 골골쫄쫄은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정음,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10개 시·군에서 진행된다.

문화의 달 10월에 펼쳐지는 예술, 골골쫄쫄은 지역관광지에서 듣는 클래식 공연, 유명 개그

우먼의 토크콘서트, 마을에서 열리는 작은 극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29일 고창남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고창농악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뉴시왕 토끼의 바다연희모험은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뉴시왕 토끼의 바다연희모험’은 토끼가 바다를 탐험하며 겪는 모험담을 전통 농악과 현대적 요소를 결합해 전통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 어린이 관객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장수군, 공연장 상주단체 ‘찾아가는 음악회’ 성료

장수군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25일 장수초등학교 공연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2024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고 장수한누리전당 상주단체인 (재)예술담은나라 주관으로 열리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이며 이번 장수초등학교 공연은 4회차 중 마지막 공연이었다.

이대정당 지휘자는 그간 수요처 기관 관객

연령대별 사전신청곡을 받아 관객과 함께 즐기는 신나는 무대를 꾸며왔으며 이번 음악회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클래식 명곡, 한국 가곡, 대중가요, K-POP, 동요 등 다양한 음악 장르로 공연을 구성했다.

한편, 오는 30일 저녁 7시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는 상주단체 4번째 메인공연 From ‘논개 & 앙코르 2024’가 열려 ‘논개’의 역사적 가치를 예술적 아름다움으로 승화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